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미국 뉴욕대 철학과 쉬퍼 교수
최고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선 실력과 열정을 가진 교수가 가장 중요하다
는 뉴욕대의 교수 영입 전략

동대신문

금주일언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сут니파타 대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2호 2009년 (불기 2553년) 11월 2일 월요일

Cover Story 학내 정보보안 무엇이 문제인가

학내 정보불감증 치유할 특단 대책 필요

일부 학생들 불법 서버운영, 무절제한 동영상 다운로드도 문제 '외국 해커들 대학전산망 경유해 국가전산망 침입' 공공연한 사실

한 졸업생의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한 학점 조작사건에 대해 학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대학 졸업생 이 모씨(27세)는 지난 2월 전산시스템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獲得)한 후, 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성적을 수차례 위조(偽造)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학내 일각에서는 전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학내 전반에 퍼져 있는 보안불감증과 잘못된 정보 이용 행태, 그리고 더 나아가 보안관련 정책이 총체적으로 재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중앙전산시스템의 경우 보안이 강화되고, 장비와 인력이 보완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것지만, 실제 학내에 만연된 보안불감증은 그런 대안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때문이다.

현재 학내에는 정보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 메인 서버와 전산시스템, 그리고 각 단과대학별 컴퓨터실에 있는 개인PC, 그리고 컴퓨터 실습실의 PC와 교수와 직원,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등 다양한 환경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정보관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학적과 인사, 행정과 관련된 중앙전산시스템이다. 중앙전산시스템은 이곳에 담겨있는 정보의 중요도로 볼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다. 그러므로 충분한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으로 차근 차근 준비하면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학내 곳곳에 산재한 개인용 PC와 네트워크의 이용 실태다.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들이 공



▲ 학내 컴퓨터 실습실에서 해킹을 시도한 이 모씨의 범행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용으로 이용하는 PC는 관리가 어려워 온갖 컴퓨터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정보관리실의 네트워크 정책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각종 P2P사이트로부터 엄청난 양의 영화와 동영상,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학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 전문적인 해커들이 대학의 네트워크를 놀이터 삼아 온갖 실험을 해보는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돼 도입된 각종 전산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와 유지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일부 부서의 경우 정부 사업에 선정돼 지원예산으로 구입한 서버와 컴퓨터를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는가 하면, 이들 서버가 해킹이나 IP경유의 유동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란사이트나 각종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의 온산인 P2P 사이트의 IP는 차단할 필요가 있거나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학내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개인적인 서버 운영도 실태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학생들의 동영상 다운로드나 온라인 게임이용도 원칙을 정해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이공계 연구실의 경우 무절제한 영상물 다운로드로 인터넷 회선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정보관리실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때

문이다. 단순히 중앙시스템의 관리뿐 아니라 학내 전반의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발주사업으로 구입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이를 관리하고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수감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제들이나, 보안관련 문제들은 학생들의 치기어린 인터넷 문화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학내 보안불감증이 심해지고 무책임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될 수록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차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이나 보안의식이 철저한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보보안과 관련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스님의 스트리킹

정병조
윤리문화학과 교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발가벗고 질주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스트리킹이라고 한다. 70년대 이후 반전주의자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 조롱의 표시로 자주 써 온 방식이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래 전 세계로 퍼진 기이한 청년문화의 방식이었다.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별 희한한 방식의 스트리킹이 진행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스트리킹의 원조는 한국인, 더구나 스님이었다. 신라 애장왕 때의 일이다. 중동(仲冬)이니까 엄청 추운 겨울밤이었다. 황룡사에 살던 정수(正秀)스님이 불 일을 마치고 절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서 출산한 거지 산모를 만났다.

돌보는 이가 있을 리 없고, 갓 태어난 아기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스님은 급한 대로 겹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다. 돌아서려고 보니 이제 산모가 죽을 지경이었다. 할 수 없이 속옷을 벗어 산모를 돌렸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 춥고 창피한 정수스님은 「신라의 달밤」을 질주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절에서는 난리가 났다. 야인 밤에 흥두깨라더니, 밤 잘 먹고 나갔던 스님이 이 지경으로 돌아오다니……. 강도를 당했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아무리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그 때 마른하늘에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장왕의 귀에는 “황룡사 정수는 국사를 삼을 만하다”는 소리로 들렸다.

왕은 황룡사 주지의 입을 열어 명하였다. 아마 주지는 초죽음이 되어 왕궁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 임금은 정보도 빠르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정수를 불러 사연을 들은 즉, 이와 같은 배경이었다. 왕은 세 번 국사에 임명하려 했으나 스님은 세 번 거절하고 절로 되돌아갔다.

정수가 벗어던진 옷은 우리가 걸친 옷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짙다. 신라학에서는 이를 페르조나(persona), 즉 가면이라고 한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가면을 쓰고 산다.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옷,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 옷, 강남에 산다는 옷, 무슨 차를 탄다는 등의 가면이 뒤덮여 산다. 아무도 이 가면 속에 가려진 진실을 보지 못한다. 정수스님이 벗어 던진 옷은 이 가면을 의미한다.

그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삶을 실현하려고 그 스트리킹을 감행한 것이다.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수시 1차 논술·면접고사 치러
- 4 해킹문제, 그 원인과 대책은?
- 5 미당 기념 사업회 발족
- 6 해외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뉴욕대학교
- 9 조정래 작가 40년 망라한 '황홀한 글감옥'
- 12 도심 속의 오아시스, 아트 팩토리



동대문학상 동대학술상 모집



동대신문사에서는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시상하여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문학과 발굴을 통하여 빛나는 동국 문학 전통을 계승하고자 제47회 동대학술상 / 제24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국의 미래를 열어갈 패기에 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분량
가. 동대학술상 :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나. 동대문학상 (1) 시 : 3편 내외 (2) 소설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희곡·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2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시부의 경우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3 응모자격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경주캠퍼스 포함, 대학원생 제외)
- 4 모집기간 : 2009년 10월 19일(월) ~ 11월 13일(금)까지
-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겹표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여러 작품을 제출할 경우 겹표지는 한 장만 작성
· 작품엔 이름 등 신상명세 기재 금지 ·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문서 양식으로 작성 · 총 3부씩 제출
- 6 보낼곳 :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동대학술상 동대문학상 담당자
- 7 문의처 : 전화 (02)2260-3494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독자마당
- 8 심사결과발표 : 2009년 12월 7일자 동대신문 지상(예정)
- 9 기타 :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되거나 현상응모된 바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 당선자에게는 개별통보합니다.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본사가 보유하고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사의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동대신문사

김주필 교수, 200억 상당 '거미박물관' 기부

조계종도 백상원 건립기금으로 15억 기부, 지관스님 "불교발전 위해 써 달라"

우리대학 김주필 명예교수가 지난 28일 200억 원 상당의 '주필 거미 박물관' 및 전시품 일체를 학교 측에 기부(寄附)했다.

김 교수가 우리대학에 기부한 '주필 거미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거미 박물관이다.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각종 전시품과 부동산은 총 200억 원을 상회(上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필 거미박물관은 25만여 점의 거미와 표본은 물론이고 수백 종의 화석, 중요석을 포함하여 도자기, 병풍, 불상 등의 인문분야 수집품들까지 빼곡히 들어차있는 종합 박물관이다. 김 교수는 약 12,000㎡ 규모의

대지에 들어서 있는 거미박물관을 비롯해 수석전시관, 동물표본관, 동물사육실, 도서관, 사택, 기타 부속 시설 등 모든 시설을 동국대에 기부키로 했다.

김 교수는 "주필 박물관 '영속화(永續化)'의 꿈을 이뤄 줄 수 있는 곳으로 동국대학교를 꼽고 있었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에 우리대학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 주변의 환경 개선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주필 거미박물관 인근의 운길산 연습림 일대 부지 약 10,000㎡를 환경생태체험학습장 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

이라며 "운길산 연습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필 거미박물관을 세계적인 생태체험 학습시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7일, 우리대학 백상원 건립 기금(基金)으로 15억 원을 기부했다.

백상원은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기숙사로, 내년 초부터 건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상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내 달마선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조계종의 기부금 15억 원과

함께, 대학 자체 예산 10억 원을 추가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사장 정련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관스님은 "종립 동국대학교가 보다 더 정진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배출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백상원 건립 기금 외에도 2006년 조계종 교육원 건립을 위한 5억 원의 건립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김철환 기자
lan@dongguk.edu

제 247회 이사회 개최(開催) 약학대 전임 교원 채용 및 총 5개 안전 승인

제 247회 이사회가 지난 30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개최돼, 약학대학 전임교원 채용 및 총 5개의 안전에 대해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 13명의 이사 중 영배스님과 정념스님을 제외한 11명의 이사가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신종플루 환자 수 급증(急增) 확진환자 31명, 추정 의심환자 15명

현재까지 파악된 신종플루 확진(確診)환자가 모두 31명, 추정 의심(疑心)환자는 15명(지난 30일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 12일에 불과 확진 환자 수가 7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종플루 확진환자 31명 중 15명은 완치된 상태이며, 나머지 16명은 가택 격리(隔離)돼 치료 중이다. 또한 추정 의심환자 15명 역시 가택 격리돼 치료 받고 있다. 학생서비스팀 관계자는 "최근 날씨 추위 때문에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도 곤경처리가 되니 신종플루 의심 시 등교를 중지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중앙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 실시 9일 후보자 등록 마감 ... 24일부터 투표

중앙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정·부회장 선거(選舉)를 포함한 각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대의원장 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중앙기구 선거는 오늘(2일) 선거 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9일까지 정·부회장, 총대위원회의 장, 총여학생회 회장의 후보자 등록(登錄)을 마감한다. 후보자는 오는 12일 공고되며, 공고 이후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009년도 NCSI 신규조사대상 선정 타 대학과 비교 분석 ... 발전 방향 제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교육서비스 부문의 신규 조사대상에 우리대학이 선정됐다.

이 조사는 학내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과 비교해 서열화하는 것이다. 지표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교과과정, 학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등이다. 결과는 우리대학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향의 제시,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동악로에서



김미로 기자
miro@dgu.edu

미봉책(彌縫策)

"학교 대표 클럽 꼴이 말이 아니다", "부처의 자비로 감싸도 모자랄 판이다" 최근 우리대학 커뮤니티 클럽(이하 디연)에 포기한 게시판, 일명 포겔이 개설되면서 개재된 학생들의 의견이다.

디연의 클럽장 임한솔(법3)학생은 포겔 개설 취지에 대해 "최근 음란글의 게재가 많아져, 게시판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게시판을 정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겔의 외부 공개와 관련해 회원 등급을 조정, 타 대학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겔 개설과 관련해 학생들 대부분의 의견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6일 디연에서 실시된 익명 투표 결과, 74명 중 53명(71%)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대 A학생은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클럽에 포겔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대 B학생은 "포겔은 다른 익명게시판을 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욕설, 음란글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것 같

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과 같이 대학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타 대학의 상황은 어떨까. 고려대 대표 커뮤니티인 고파스의 경우, 학생들 스스로가 게시물에 대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고파스 운영진 박종찬 학생은 "고려대 커뮤니티의 경우, '생동요청'이라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학생들 스스로 게시물의 수위를 조절하고, 냉동요청이 7회 이상이면 게시물 열람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학생들간 논란과 관련해 임한솔 학생은 "욕설, 음란글 등의 게재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포겔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앨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자유(自由)로운 표현의 보장',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되 다른 익명게시판의 정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씩씩하게 한다.

어이없는 미봉책이 진지한 대안으로 고려되는 현실에 학생들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한다.

11월 해화문 에스컬레이터 완공 아치형 덮개 및 CCTV도 설치할 예정

해화문 에스컬레이터가 오는 13일 완공(完工)돼, 학생들의 등굣길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해화문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8월 26일 착공해 11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예상보다 완공 예정일이 앞당겨졌다.

중구청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3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중구청 공원녹지과의 김종규 계장은 "현재 기계 설치과정을 진행 중이며 기계 설치가 끝나는 대로 시운전 및 준공 검사를 할 예정이다"라며 "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조심히 이용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해화문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아치형의 덮개와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에 대비한 CCTV 설치 공사와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경찰행정학과 외부장학금 수여 총 기탁금 약 6억 원에 이르러

경찰행정학과 가을학기 외부장학금 수여행사가 지난 29일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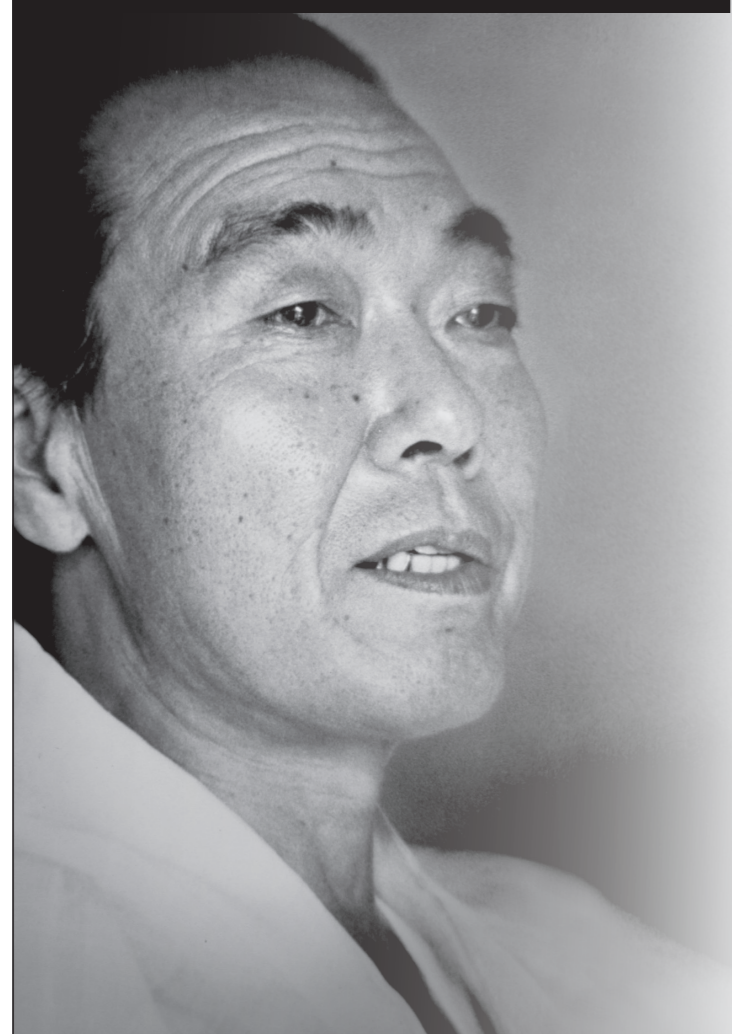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심응석 경찰행정학과 총동창회장과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하이파킹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장학회(회장 심응석)를 비롯해 주식회사 하이파킹 장학회(대표이사 윤형관), 주식회사 에스원 장학회(대표이사 서준희), 주식회사 교차로 장학회(대표이사 김인겸), 설재운 장학회,

대성강업 장희(대표이사 조원선), 신한철강 장학회(대표이사 장용), 세운상사 장학회(대표이사 김성룡)에서 총 3천 1백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백운 장학회(이충희 이사장)의 5백만 원 장학금을 포함하면 3천 6백만 원에 이른다.

지난 학기 총 외부 장학금 3천 6백만 원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3천 6백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외부 장학금으로 경찰행정학과에 기탁된 금액은 총 5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

[세상을 비추는 동국의 힘 - 서정주 편]



門 열iera 꽃아. 門 열iera 꽃아.

-서정주의 시 '꽃'의 독백 -

아침마다 피어나는 꽃같이
세상의 처음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시대의 앞에 서서 새로운 시대를 깨웁니다.
진리 추구와 이상을 향한 소망과 의지로
누구보다 세상의 맨 처음을 열어가시는 동국대학교,
더 큰 가능성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합니다.

거침없이 끊임없이
동국대학교

미당 서정주 (1915-2000)
1935년 동국대학교 입학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봉직
및 종신명예교수 역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일자	전형일시	홈페이지주소
일반대학원	10.29(목)~11.04(수)	11.14(토)	http://gs.dongguk.edu
경영전문대학원	11.09(월)~11.20(토)	11.28(토) 10:00	http://mba.dongguk.edu
영상대학원	10.27(화)~11.02(월)	11.07(토) 10:00	http://dic.dongguk.edu
불교대학원	11.09(월)~11.27(금)	12.05(토) 10:00	http://gsbs.dongguk.edu
법무대학원	11.16(월)~11.30(월)	12.02(수) 19:00	http://gslaw.dongguk.edu
행정대학원	11.09(월)~11.20(금)	11.28(토) 14:00	http://gspa.dongguk.edu
교육대학원	11.09(월)~11.20(금)	11.28(토) 14:00	http://gsedu.dongguk.edu
문화예술대학원	11.09(월)~11.20(금)	11.28(토) 10:00	http://gsca.dongguk.edu
언론정보대학원	11.09(월)~11.20(금)	11.28(토) 10:00	http://gsai.dongguk.edu
국제정보대학원	11.09(월)~11.20(금)	11.28(토) 14:00	http://gsai.dongguk.edu



전산망 해킹문제, 복합적인 보안대책 절실하다

인력·재정 지원·윤리의식 제고 필요...개발업체 책임도 엄정히 추궁해야

우리대학 졸업생이 전산망을 해킹해 성적을 조작(造作)한 사건을 둘러싸고 학내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이 모 군은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하고 취미삼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에 관심을 가진 아마추어 해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군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킹을 시도해본 것이었는데, 의외로 단순한 패킷 프로그램만으로도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학교 전산망이 이렇게 허술할 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군은 또,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학교 서버에 들어가보니 교수와 직원의 임용과 급여, 학점관리, 학생들의 신상정보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었고, 조작도 가능해 보였다”고 말하고 “심지어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입학시켜 졸업까지 가능하게 위조할 수 있어 보였다”고 말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아마추어 해커도 뚫은 보안시스템

해킹을 통해 학점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학내 구성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한재우(법1)군은 “이번 사태는 전산망의 보안관리가 얼마나 소홀(疏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떻게 보안관리를 하고 있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과대의 A교수도 “지금까지 학교가 8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 년간에 걸쳐 추진한 전산망 개선작업이 무엇이었는데 공금하다”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

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산망 교체과정에서 생긴 허점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이 군이 사용한 수법은 버프스킷(Burp suite)란 패킷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보적인 해킹 방식이었다. 버프스킷 프로그램은 서버내의 프로토콜을 스캐닝 해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찾아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수법으로 보안설정이 허술한 서버에서 사용되는 해킹기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관리실 관계자들은 “이번 해킹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안시스템의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보관리실 이국환 팀장은 “피의자를 잡은 후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범인이 사용한 해킹방식을 알고 허탈했다”고 말해 얼마나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자인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해킹전문가들이 볼 때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방법”이라며 “이런 공격을 예상치 못했다면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전문가 A씨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으로 파악할 때, 학내 및 외부 공개 시스템들의 보안 상태를 따지면 매우 취약, 취약, 미흡, 보통, 안전 중 ‘취약’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측의 적절한 보안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이 모군은 이번 해킹을 통해 학생 성적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교수임용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만약 해커들이 단순히 학점 조작 등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정보나 학적, 교수임용, 행정예산

등의 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했다면 사태는 훨씬 심각하게 전개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관리실은 이에 대해 “이번 해킹은 서버가 아닌 uDRIMS라는 웹 프로그램 하나에 대한 해킹만 성공한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지만 수요조사에서 나온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안 책임둘러싸고 대우와 논란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내 일각에서는 우리대학 전산망 사업을 수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대우정보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보관리실 관계자는 “해킹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은 한창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고 테스트가 이뤄지던 시기였다”며 “보안시스템을 비롯한 전산망 운영 책임이 넘어온 것은 4월이후이기 때문에 해킹 보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책임은 보안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했던 대우정보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정보시스템의 대학ERP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은 대우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추가 등 보수 및 관리는 대학 책임”이라고 밝히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대학의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지난 2월의 경우 정보관리실의 주장처럼 운영책임도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어서 대우정보시스템의 보안시스템 설계나 운영지침상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이 아직 대우정보시스템에 지급해야 할 사업비가 13억원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는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안전문가 A씨는 “이번 해킹에 노출된 uDRIMS와 같은 웹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공개되기 때문에 해커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해커가 홈페이지를 스캐닝 해, 작업 중인 페이지를 찾고 취약점을 파악(把握)하면 얼마든지 이번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보안시스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보안시스템을 늘 정비하고 네트워크 상태와 서버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상시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 = 백선아 기자

보안시스템 무엇보다 손봐야하나?

정보관리실은 현재 교과부와 공동으로 전산망 보안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 전산망 사업을 시행한 대우정보시스템이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시스템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즉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해킹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관리실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 보안 업체의 분기별 모의해킹테스트를 통하여 취약점 분석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우 정보관리실장은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보안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인 세션 관리 개선,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인증서 도입, 중요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등의 보안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완료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보안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KI인증서는 온라인 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상호 인증 시스템 중 하나로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의 로그인 시 적용될 계획이다.

PKI인증서가 도입되면 로그인을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ID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한획득이 어려워진다. 즉 이중 삼중의 보안검증을 통해 온라인을 통

한 정보가로채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8월부터 가동 중인 감사시스템을 통해 중요데이터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기록하게끔 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성적과 같은 중요 데이터 변경 시 경고를 뜨도록 해 관리자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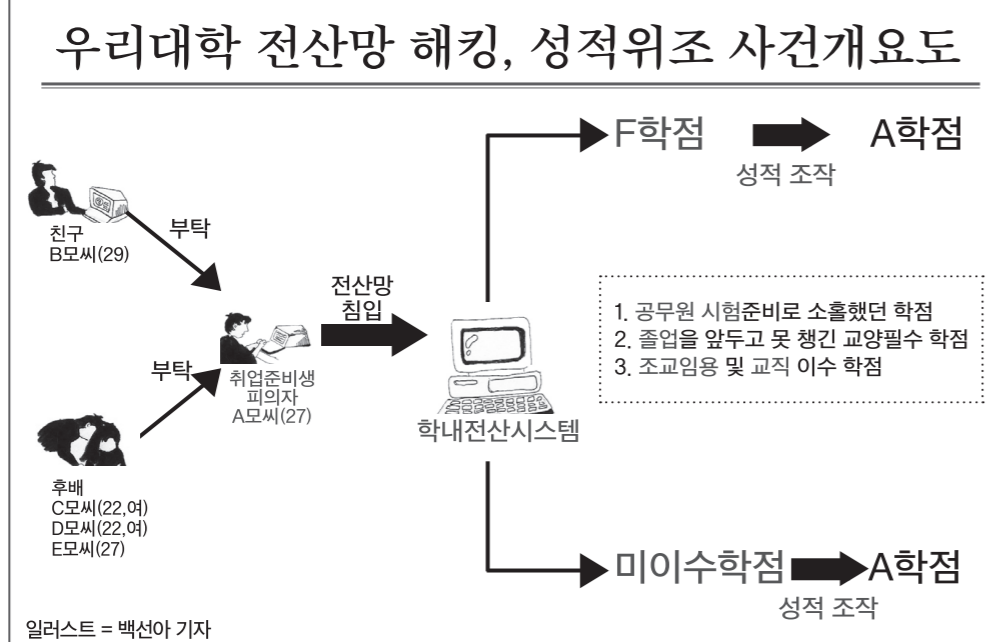
정보보안-윤리교육도 필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스템적 결함(缺陷)과 관리 소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 발생에 학생들의 윤리(倫理)의식 문제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자산을 함부로 조작한다는 것은 윤리의식을 떠나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학생과 교수, 직원들에 대해 정보보안과 관련된 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보안과 관련된 예산과 장비충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의자들을 엄중(嚴重)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관련 학칙을 제정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Do you know D-Style?!

It's N.I.C.E!

D-Style은 Dongguk Style로
예의바른 행동과 진정으로 동국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양심적인 동국인, 이것이 바로 N.I.C.E.한 스타일의 동국인입니다

N

Noble attitude

I

I ♥ Dongguk

C

Considerate of others

E

Ethical leader

강의실 에티켓

- 수업시작 5분전까지 입실해요.
- 수업 중 휴대폰은 꺼놓거나 진동으로!
- 교수님께 먼저 인사하기는 기본인거 아시죠?
- 리포트 표절, 컨닝은 안돼요~ 안돼~ 절대금지!
- 자신의 쓰레기는 가지고 나와야 진정한 동국인 ^^

도서관 에티켓

- 휴대폰은 무음으로, 문자는 제발 자제해요.
- 장시간, 무리한 자리 말기는 민상중의 민상이에요.
- 도서관 내에서 잡담하고 떠드는 강심장은 없겠죠?
- 종이컵과 캔 등의 쓰레기는 휴지통으로~!
- 노트북 자판소리와 MP3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불륨은 낮추세요.

공중 에티켓

- 바닥에 걸이나 침을 뱉지 마세요.
-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해요.
- 화장실은 전 구역 금연 장소라는 것 아시죠?
- 인쇄 컴퓨터에서는 인쇄만 해야 서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교내에서는 자동차와 스쿠터 모두 안전하게 서행해요.

동화 · 동감 · 108리더스와 함께하는 N.I.C.E. 동국 캠페인!



① 고창 미당시문학관에 전시된 미당의 옥필 원고와 그의 사진. ② 지난 20일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미당기념사업회 발기인 대회모습.



미당 서정주 재평가 움직임 본격화

12월 기념사업회 발족, 봉산산방 복원, 미당 문학제 등 잇따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詩)로 구현하고, 20세기 한국 문학(文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능성을 연 당대의 서정시인 미당 서정주(1915~2000). 젊은 시절의 친일 문학 행적과 5공화국 지지 등으로 비판(批判)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미당 서정주 시인에 대해 최근 그의 문학 성취(成就)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기념사업회 발기대회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난 20일 흥기삼 전 동국대 총장, 문학평론가 이남호 고려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미당 기념 사업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미당 서정주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미당 선생의 제자이자 이 사업회의 총무인 윤재웅 교수(국어교육)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업회의 구상(構想)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여론(輿論)의 분위기가 상 미당 기념 사업회를 출범(出帆)시킬 수 없었다"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져 이를 계기로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미당 재평가 사업에 주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미당 서정주 선생의 친일 행적(行蹟)이 부각돼 7차 교육과정 개정 중에 미당 선생의 시가 국어 교과서에서 배제(排除)되었다. 미당의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윤재웅 교수는 "미당의 재평가란 미당 선생의 친일 행적을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당 선생을 오직 친일파라고 여기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의 문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내년 10주기 맞아 다양한 행사

'미당 기념 사업회'는 내년 미당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미당 기념 사업회'가 추진하는 것으로는 미당문학제의 활성화다. 미당문학제는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진행되던 행사이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올해 미당문학제에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치러질 예정이며 신경림, 김인, 문태준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참석한다. 특

히 신경림 시인의 참여는 최근 미당 문학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림 시인은 "미당의 작품은 그의 친일행태와 구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친일행태를 이유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무시한다면 우리 시문학사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밝힌 바 있다.

봉산산방 복원에 문화시설로

'미당기념사업회'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미당 선생의 고택 보존 및 문화복합시설 유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고택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인근주민들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북카페, 학술 세미나 등 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태어난 '미당 서정주의 집'에서 시낭송 대회, 학술 세미나 등 인근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덮여 있던 그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오는 2010년 미당 서정주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미당기념사업회'는 미당 아카데미 및 국제 학술 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당 아카

데미는 우리대학 교양교육원과 연계하여 미당의 작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당의 작품을 소개하는 교양 강좌로, 미당 서정주 선생의 10주기인 내년에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 윤 교수는 미당 선생의 명시(名詩)를 재 해설한 미당전집과 미당문학사전을 집필 하고 있다. 그는 "미당의 명시를 고급한 문체로 해설하여 일반 대중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며 일반 대중들에게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작품이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이 해설집은 내년 미당 선생의 10주기에 맞춰 출간(出刊)할 계획이다.

'미당기념사업회'는 미당 문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오는 12월 23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와 회칙을 꾸리고 미당전집과 미당문학사전 출간, 미당문학회 발족 등을 준비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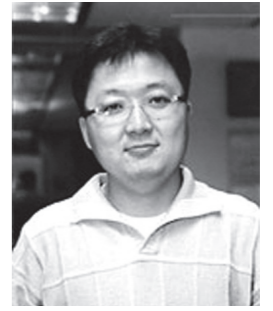
20세기 한국 문학의 거장, 시의 정부(政府) 등 문학계에서 다양한 찬사를 받아온 미당 서정주 선생, 과거의 행적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한국 문학계에서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덮여 있던 그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매체비평

두 스타의 하차(下車), 대중의 선택은?

김제동과 손석희 - 두 사람의 하차(下車)는 보수진영에 득이 될까. 그럴 것 같진 않다. 보수진영의 반응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두 사람의 갑작스런 하차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수신문은 한나라당의 '10·28 재보선 결과' 패배를 분석한 기사에서 김제동 씨 하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임동기
PD저널 편집국장

왜일까. 이유는 하나다. 인지도와 호감도, 영향력 면에서 김제동은 '좌우' 상관없이 대중의 폭넓은 지지(支持)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송인에 정치적 잣대를 씌워 '퇴출' 시키면 일반 대중이 지지를 보낼까. 천만의 말씀!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결과는 자명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조선·동아의 김제동 퇴출(退出)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제동이라는 인물을 보며 '정치'를 연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 사회를 보고, 이런저런 사회적 발언을 해오긴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제동을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방송인으로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KBS '일부 간부들'은 대중의 정서를 읽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손석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웬만한 연예인과 정치인을 능가한다. 무엇보다 그는 영향력 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압도적 우위(優位)를 자랑한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는 경쟁력 1위의 언론인이다.

이런 두 사람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병순 KBS 사장과 엄기영 MBC 사장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될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권력(權力)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 충성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다.

이병순 사장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난다. 연임을 노리는 이 사장 입장에선 사활을 걸어야 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압박을 받고 있는 엄기영 사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뉴라이트 성격이 짙은 방문진의 시선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MBC 보수화'라는 카드를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켜야 한다. 김제동과 손석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가 아닐까.

하지만 두 사장의 선택은 실패(失敗)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에 대한 호감도와 영향력 면에서 이병순·엄기영 사장보다 김제동·손석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시청률 잘 나오는 연예 프로그램 진행자를 '정치적인' 이유로 끌어내릴 때, 인지도와 영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언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할 때, 대중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재미와 오락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일보가 지지하지 않는 김제동 교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마저 비판한 손석희 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렵다. 이병순·엄기영 사장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에게 자충수이고, 결국 부메랑이 될 확률이 높다. '김제동과 손석희 vs 이병순과 엄기영'의 최종 승자(勝者)는 결국 김제동과 손석희가 될 것이다.

신종플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감염 증상이 있거나 거주지역에서 치료를 받아 격리치료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즉시 학교(상황실 02-2260-3699)로 연락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체 행사(개강총회, 세미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에티켓을 철저히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걱정보다는 진료로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거점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충분한 휴식, 수분섭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 37.8 °C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구 거점병원 : 국립의료원 (1588-1775) 백병원 (2270-0114) 송도병원 : 2231-0900

스타급 교수 영입 위해서라면 최고의 대우는 당연한 일

철학과 학과장 스테판 쉬퍼 교수 인터뷰



뉴욕대의 스타급 교수 영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갔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뉴욕대 철학과 의 학과장인 스테판 쉬퍼(Stephen Schiffer)교수를 만나 뉴욕대의 교수 영입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가 뉴욕대에 영입되어 온 것은 1990년대 중반, 뉴욕대는 70년대 큰 위기를 맞아 철학과에 박사과정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다. 양한 분야의 실용성은 스타급 교수를 영입해야 했다. 그에게 스테판 쉬퍼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이 시작되었다.

"능력 있는 교수들"이라는 말이 뉴욕대의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것이다. 쉬퍼 교수는 대학의 경쟁력에 대해 순서가 결정되고 그 후로는 진정으로 교수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 평가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더 유명하고 실력 있는 교수들이 학과에 많을수록 그 학과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즉 스타급 교수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학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철학과의 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철학과는 여러 대학평가기관의 평가에서 아래 등급이 되었다.

그러한 평가의 기초는 역량이 있는 교수들이다. 물론 여려운 취업시장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대부분은 교수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처럼 능력 있는 교수들이 존재함으로써 학과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뉴욕대는 70년대 큰 위기를 겪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대대적인 기금모집과 이를 통한 스타급 교수의 영입이었다. 뉴욕대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이자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을 대학으로 불러 모았다. 그 결과 외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현재와 같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인재유치 전략을 경영학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들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편집자

골심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
3. 미국 컬럼비아 대학
4.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5. 미국 뉴욕대학
6. 일본 교토대학
7. 중국 베이징대학
8. 홍콩대학
9. 중국 칭화대학
10. 프랑스 파리 4대학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뉴욕 = 이수진 기자 innoct17@hmail.net

잡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의 상징부라 할 수 있는 맨하탄은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뉴욕대학이 있다. 컬럼비아는 정형화된 유틸리티 없이 감각적인 제멋대로 퍼져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뉴욕 대학에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대가 이처럼 고연봉, 파격적인 연구 지원 등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교수들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뉴욕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약 17만 달러(2억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된다(한 달, 또 연구비도 매년 기본적으로 4만 달러)한다. 또 연구비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한다. 스타인 하트 스톨(Steinhardt School)의 코헨(Erin Stahl Cohen)씨는 "학과는 '학과'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지금 뉴욕대 최고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가 좋은 능력 있는 교수'가 되었다."

연구 성과가 좋은 능력 있는 교수들

뉴욕대는 학문적으로 일류급 교수들을 계속 영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고의 교수진을 모아 영입했다. 그리고 지금 뉴욕대 최고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가 좋은 능력 있는 교수'가 되었다.

회계학과(Department of Accounting)의 학과장인 프ред리(Frederick D.S. Choi)교수는 "대학교는 학자들(교수진과 학생들)의 집합체라 지니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학교의 명성은 교수들의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대학교가 교수에게 영향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대학교가 명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능력이 있는 교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욕대는 유능한 교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우선 능력 있는 교수들을 선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프레드릭 교수는 "우리는 교수들의 잠재력을 보고 영입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그 학과에서 그의 논문이 세계를 누를 만한 능력을 발휘했는가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뉴욕대는 기준에 맞는 교수를 탐색하고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예컨대에서 강의하다 뉴욕대로 영입되어 온 로스록 및 철학과 의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 교수는 "철학계의 기원도 문헌학과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뉴욕대로 오기로 결정했다"며 "로스록은 내가 학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 대 있어서도 유연성을 제공해주며 매우 많은 일용해만 했다. 그 결과, 지금은 명실상부한 철학계의 학문 거두나고 있었다.

현재 뉴욕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영환 학생은 "유능한 교수들이 학교에 많다"는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뿐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5) 미국 - 뉴욕대학교 (NYU) "스타급 교수 영입으로 명문 반열 올라"



△ 뉴욕 맨하탄은 세계의 문화가 끓고 있는 문화의 용광로이다(왼쪽의 타임스퀘어 왼쪽). 맨하탄 한복판에 자리잡은 NYU는 보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대학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도성캠퍼스를 가지고 있다(오른쪽)

경제학과 의 조셉 프루디(Joseph Froudy)교수는 "내가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 뉴욕이라는 도시가 최고의 조건을 지녔다. 웰스트리트와 세제의 자본주의를 이끄는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뉴욕 대학에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대가 이처럼 고연봉, 파격적인 연구 지원 등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교수들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뉴욕대 교수의 경우 연봉이 약 17만 달러(2억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된다(한 달, 또 연구비도 매년 기본적으로 4만 달러)한다. 또 연구비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한다. 스타인 하트 스톨(Steinhardt School)의 코헨(Erin Stahl Cohen)씨는 "학과는 '학과'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지금 뉴욕대 최고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가 좋은 능력 있는 교수'가 되었다."

70년대 학교 부도 위기... 80년대 스타급 교수 영입으로 급속히 성장 티시스쿨 등 지리적 이점 살려 영화, 예술, 금융 분야 등 특성화 전략

뉴욕대는 학문적으로 일류급 교수들을 계속 영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고의 교수진을 모아 영입했다. 그리고 지금 뉴욕대 최고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가 좋은 능력 있는 교수'가 되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교수들

뉴욕대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실용적인 교육을 받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무에 나가서 직접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이라고 여겼다. 그렇기에 그 분야의 학문 연구 성과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과 초당하여 특별 이벤트를 여는 등 기부자들에게 대한 우대도 뛰어나기 때문에 기금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지닌 교수들을 하나둘씩 끌어들이면서 뉴욕대는 광범위한 성장을 해나갔다. 학문적인 사명이 높아져 학과장에게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교수들의 존재는 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유리한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철학과의 경우, 1970년대에는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 박사(Ph.D)과정이 중단되기도 했었고 90년대 중반엔 디시 박사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잘 알려진 다양한 철학자들 교수인 일용해만 했다. 그 결과, 지금은 명실상부한 철학계의 학문 거두나고 있었다.

현재 뉴욕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영환 학생은 "유능한 교수들이 학교에 많다"는 것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뿐

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뉴욕대에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교수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능력 있는 교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교수와 학과를 이루는 학과를 위한 것.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그를 통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시간에 가장 신경 써서 가르치는 부분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론을 설명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실제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이론들을 스스로 살피에 적용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서 많은 학생들은 인원을 하려고 영입을 올렸다. 커티스 교수의 자신의 인재를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인턴십을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학생들을 추천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직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과는 달리 뉴욕대에는 인턴십 추천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된다. 인턴십 추천 서비스는 인턴십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도 한 몫을 했다.

배출할 수 없는 자량, 티시스쿨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이론들을 스스로 살피에 적용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서 많은 학생들은 인원을 하려고 영입을 올렸다. 커티스 교수의 자신의 인재를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인턴십을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학생들을 추천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직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과는 달리 뉴욕대에는 인턴십 추천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된다. 인턴십 추천 서비스는 인턴십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도 한 몫을 했다.

배출할 수 없는 자량, 티시스쿨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뉴욕대가 자랑하는 경쟁력은 어떤면에서 아니다. 뉴욕대의 예술 대학 티시스쿨(Tisch School of Arts)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올렸다. 이 또한 대학의 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시 호텔에 상환은 여학생 그리고 그 호텔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룬다.

강하다는 점과 훌륭한 졸업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예술대학 학생의 경우 예술적 감수성은 풍부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렇지만 뉴욕대의 티시스쿨은 예. 예술대학과는 달리 포드폴리오뿐만 아니라 성적이 입학 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드폴리오가 뛰어나다고 해서 입학의 길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예술대학의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편견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티시스쿨은 기초학문에 대한 커리큘럼이 엄격하게 짜여 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128학점 중 전공을 56 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고 나머지 중 44학점은 기초교양과목을 들어야 한다.

1학년 때에는 필수과목으로 creative writing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때, 공감을 받고 쓰는 글을 읽고 그를 종합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써야 한다. 한 학기에 3-4개 정도의 수업을 쓰게 되는데 1학기에 한 번씩 두 번을 듣게 된다. 또한 나머지는 문과계 관련 과목을 두 분부로 나눠서 그 분야에 맞는 역사, 지리, 철학 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 학기에 적어도 교양과목을 한 두 개 이상은 이수해야 하는 것. 이렇듯 보니 인문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인문학 하는 것이 아니다. 티시스쿨의 인문학에 대한 중언 박 지혜 학생은 "사실 영화와 수업의 경우 수업 한 번에 6시간 이상을 하지만 인문학에 한 번이 아니라 6시간 이상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예로 라시워의 감독인 로버트 로버트 감독의 이름으로 된 장편이었던 것이다. 이번 티시스쿨은 이런 것이다. 매년 티시스쿨은 관련 경제가 열리는 데 이때까지 많은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공문도 즐기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쌓고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한 학기에 5-6년 정도 수업시간에 아무런 공과 없이 캠퍼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티시스쿨에 다닌 학생들은 바로 학생들 위에서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지원되는 훌륭한 졸업생들이다. 유명한 졸업생의 존재가 없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 평을 해주고 조언이나 충고를 자유롭게 이루어 준다. 지금은 인턴십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도 한 몫을 했다.

영화와? 기초학문 공부없는 어려워요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공문도 즐기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쌓고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한 학기에 5-6년 정도 수업시간에 아무런 공과 없이 캠퍼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티시스쿨에 다닌 학생들은 바로 학생들 위에서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지원되는 훌륭한 졸업생들이다. 유명한 졸업생의 존재가 없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 평을 해주고 조언이나 충고를 자유롭게 이루어 준다. 지금은 인턴십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도 한 몫을 했다.

이제는 선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이때 대한 보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 부부는 것이 아닌 교수들의 인력, 예를 들면 교수가 가르치면 학생의 자격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초학문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 "뉴욕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훌륭한 졸업생들의 특별한 지원"이 있는 뉴욕대 티시스쿨의 미래는 밝기만하다.

"인턴서 취업까지 세심한 배려에 감동"

커티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켄 짐 씨 인터뷰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은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켄 짐은 커티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켄 짐 씨 인터뷰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은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켄 짐은 커티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켄 짐 씨 인터뷰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은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켄 짐은 커티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켄 짐 씨 인터뷰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은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켄 짐은 커티스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켄 짐 씨 인터뷰

"영화와? 기초학문 공부없는 어려워요"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공문도 즐기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쌓고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한 학기에 5-6년 정도 수업시간에 아무런 공과 없이 캠퍼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티시스쿨에 다닌 학생들은 바로 학생들 위에서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지원되는 훌륭한 졸업생들이다. 유명한 졸업생의 존재가 없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 평을 해주고 조언이나 충고를 자유롭게 이루어 준다. 지금은 인턴십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도 한 몫을 했다.

이제는 선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이때 대한 보상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서 부부는 것이 아닌 교수들의 인력, 예를 들면 교수가 가르치면 학생의 자격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초학문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 "뉴욕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훌륭한 졸업생들의 특별한 지원"이 있는 뉴욕대 티시스쿨의 미래는 밝기만하다.

"70년대 철학과 박사과정 운영중단이라는 큰 위기 겪은 후, 80년대 들어 최고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확신 갖게돼"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의 발돋움도 모른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교수들의 영입기준은 무엇일까. 쉬퍼 교수는 "초인교수의 경우엔 그의 연구 실적과 추천서를 살펴 그의 자질을 본다. 하지만 우리가 고용하려고 하는 교수들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그 분야에 가장 최고의 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철학과는 여러 대학평가기관의 평가에서 아래 등급이 되었다.

그러한 평가의 기초는 역량이 있는 교수들이다. 물론 여려운 취업시장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대부분은 교수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처럼 능력 있는 교수들이 존재함으로써 학과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INTERVIEW

△ NYU의 보석방 2층과 뉴욕의 명물 열기구

△ 뉴욕 티시스쿨은 우디 앨런이나 마틴 스코세지같은 졸업생들을 배출한 명망이다.

INTERVIEW

“불살생 계율 확대 통해 생명위기 타개해야”

제 28회 에코포럼, ‘생명위기와 철학’ 주제로 개최



▲ 에코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관수(교양교육) 교수.

우리대학 생태환경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 28회 에코포럼 정례세미나가 ‘생명위기와 철학’이란 주제로 지난 20일 학림관 212호에서 열렸다. 이번 에코포럼에는 이관수(교양교육원, 흥운기(철학), 이도흠(한양대 국어국문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제 1발제를 맡은 이관수 교수는 “현대 생물학은 종(種)의 개념에 대해 수십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공해,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파괴로 생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엽적(枝葉的)이고 제한적으로밖에 논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다양성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인 온난화는 기상 데이터를 축적한 기간이 짧아 의견이 분분하지만 온실가스의 감축(減縮)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환경문제 외에도 식량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의 규모를 늘리기 어렵지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며 “농약 남용,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적 충격을 줄이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흥운기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살(自殺)문제에 대한 철학적, 문명론적 의미에 관해 강연했다. 흥 교수는 “자살로 죽는 한국인이 명백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로 사회적 논의(論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IMF 등의 경제위기 외에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급속히 증가(增加)하고 있다”며 “민주화, IMF 사태 이후 사회갈등(社會葛藤) 상황은 규범(規範)의 부재로 인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초래(招來)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 교수는 사회적 규범의 동요(動搖)·붕괴(崩壞) 등으로 일어나는 혼돈이나 구성원의 행위의 무규제 상태를 말하는 뒤르켐의 ‘아노미(anomie)’ 개념을 언급하면서 “자살이 단순히 국력과 국부의 문제가

아닌 것은 뒤르켐이 ‘자살론’을 발표할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뒤르켐의 기대와 달리 우리사회는 규범질서를 악용(惡用)하고 왜곡시켜 이득을 보는 집단에 의해 조종(操縱)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살형태는 타살형 자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包括的) 의미의 규범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기의 대안으로서 불교의 생명철학과 생태론’을 발제한 이도흠 교수는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의 멸종위기에 불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 생명에는 구세(九世)의 업이 어우러져 있고 업력이 십세(十世)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늘 인류의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도흠 교수는 “생명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다른 생명 및 자연환경과 공존공영(共存共榮)하며 진화했다”며 “이와 같은 연기론과 윤회설(輪回說)에 입각(立脚)해 불교는 동물, 식물은 물론 흙과 물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눈에 보이는 개체에 대해 불살생(不殺生)의 계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수많은 생명체를 학살(虐殺)하는 환경훼손에 무관심한 불자가 아직은 많다”며 “21세기를 맞아 개체적 불살생에 생태적 불살생을 포함시킨 불살생의 계율을 확대해 환경보호에 불교의 사상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코포럼은 세분화된 분과학문의 전문성을 넘어 학제적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학술포럼으로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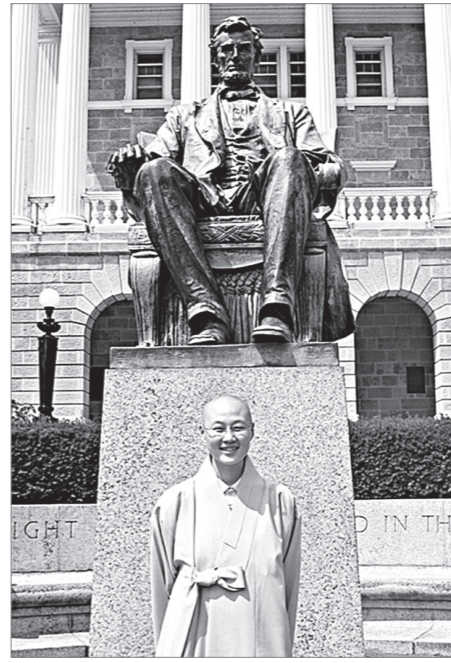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파워 엘리트 장학생들의 유학 수기 <1>

학제간 연구 활발해 광범위한 연구 가능

대학 구내에만 도서관 50개, 연구자료 한눈에



위스콘신 대학의 교육학과는 10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들어온 Curriculum and Instruction 분야는 가장 큰 과 중의 하나로 세부전공이 1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전공을 정해서 들어오지만 이곳은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학문적 배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구조적 교육과정이 이 과를 미국 내 대학원 순위 Top 1에 있게 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처음 들어온 저로서는 본인의 연구과제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부담감과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수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와 더불어 학제간 연구를 활발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Course Guide라는 것을 만들어 학교에 개설된 모든 과목을 찾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개설되었던 과목들까지 볼 수 있어 특정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원이 충족되면 그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연구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도서관 시스템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은 약 50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의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과도 연계를 맺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수 학회에서 발행된 자료들은 바로 word파일이나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료도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웹문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경험해본 학교생활이지만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움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 중에도 부처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항상 정진해 나가기를, 조금은 희미한 연구주제도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해 지기를, 그리고 이로써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배움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헤주스님 불교학 04졸

이 글은 우리대학의 파워엘리트 장학기금을 통해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현지에서의 유학체험을 보내온 것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기후변화의 결과, 나무가 멸종된다”

미국 산림청 네드 박사 ‘기후변화와 산림병’ 강연서 주장

우리대학 황사·사막방지 연구소가 주최한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 세미나가 지난 27일 해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산림청의 네드 박사가 초청(招請)강사로 참여했으며 ‘기후변화와 산림 병해 발생의 영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네드 박사는 미국 산림청 책임연구원이자 아이다호대학의 교수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심포

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가 우리대학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의 초청으로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화두로 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숲을 이루는 산림은 기후변화(氣候變化)에 매우 민감하여 자생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면 산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나무는 인간과 마

찬가지로 생활환경이 바뀔 때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곧바로 병에 노출되어 생명현상을 잃게 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산림청은 미국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종인 미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온도 상승으로 약 50년 이후에는 미송의 10%만을 남겨두고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관해 네드 박사는 “나무가 멸종(滅種)하는 이유는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자생지의 환경이 바뀌어 나무에 기생하는 미생물이 나무에 침입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뿌리를 부패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 대하여 네드 박사는

“이번 연구는 캐나다 등 다른 세 국가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종합한 연구”라고 말하면서 “이번 결과를 자연과학 분야의 최우수 학회지인 네이처지에 투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립산림과학원은 2060년에는 소나무 자생(自生)지 면적이 지금보다 50%로 줄어들어 일부 산악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네드 박사는 이에 대해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나무 숲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du

자격으로 끝나는 MBA는 가라!

MBA

현장에서 인정받는 MBA는 따로 있다

실무에 강한 국내 유일의 현장 맞춤형 - 동국대학교 MBA

Culture-Oriented MBA : 한·미·일·영·중·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화된 문화경영관리사 양성
 Entrepreneurship MBA : 기업경영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영자로서의 역량
 국제사무관리 MBA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경영의 최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CPA MBA : CPA공인회계사 MBA를 동시에 취득하는 관리자 양성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제 GMAT 면제

2010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9. 11. 9(월) ~ 11. 20(금) | 세상을 바꾸는 힘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

2010학년도 국제정보대학원 전기 신(편)입생 모집

1.일정

구분	일자
입학원서 접수	2009. 11. 9(월) ~ 11.20(금) 09:00 ~ 17:00
전형일(구술면접)	2009. 11. 28(토) 14:00 ~
합격자 발표	2009. 12. 3(목)

2. 모집학과(전공)

구분	일자	전공
신(편)입학	정보보호	정보보호, 사이버포렌식
	영어통번역	영어통번역전공 (입학 후 2학기부터 영어통역, 영어번역전공으로 세분화 됨)

3. 접수

구분	접수처
인터넷 접수	http://gsiaj.dongguk.edu
방문 접수/우편접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학술관1층)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4.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iaj.dongguk.edu)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33-5)

국제정보대학원

2010학년도 언론정보대학원 전기 신(편)입생 모집

1.일정

구분	일자
입학원서 접수	2009. 11. 9(월) ~ 11.20(금) 09:00 ~ 17:00
전형일(구술면접)	2009. 11. 28(토) 10:00 ~
합격자 발표	2009. 12. 3(목)

2. 모집학과(전공)

구분	일자	전공
신(편)입학	신문방송	신문방송, 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	광고홍보
	출판잡지	출판잡지, 인쇄화상

3. 접수

구분	접수처
인터넷 접수	http://gsiaj.dongguk.edu
방문 접수/우편접수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학술관1층)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4.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iaj.dongguk.edu)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733-5)

언론정보대학원

이주의 새책

조정래, 작가 인생 40년의 기록



황홀한 글감옥
지은이 조정래
펴낸곳 시사IN북
12,000원 / 420쪽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쓸 수 있습니까. 예술(藝術)을 하는데 재능(才能)과 노력은 어느 정도 비율이어야 합니까. 대하소설 3부작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달하고픈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황홀한 글감옥’은 그에게 묻고 싶은 거의 모든 질문이 총망라(總網羅)된 책이다.

조정래 석좌교수는 ‘태백산맥’ 10권, ‘아리랑’ 12권, ‘한강’ 10권의 대하장편소설과 ‘인간연습’, ‘오 하느님’ 등 장편소설을 씀 없이 펴내면서도 그 자신에 대한 글귀를 써냈던 적이 없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왜 자전소설을 쓰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 또한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황홀한 글감옥’은 조정래 작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에 대해 조 교수의 40년 작가 인생을 담은 자서전(自敘傳)이다.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便紙) 형식을 띄고 있는 조정래 자서전 ‘황홀한 글감옥’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젊은이 250여 명에게서 ‘평소 작가 조정래에게 궁금했던 질문(質問)’ 500여 개를 받았고, 이들 질문 가운데 84개 질문을 추려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저술했다. 또 이 책은 조정래 석좌교수의 문학론(文學論), 작품론(作品論), 인생론(人生論)으로 나뉘어 기술됐다. 조정래 석좌교수는 40년 글쓰기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과 창작 실기론과 그의 소설을 읽고 문학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한번쯤 떠올렸을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한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승려임에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그 자신이 승려가 될 뻔했던 사건부터 아내인 김초혜 시인과의 연애사, 대하소설 3부작의 현장 취재 이야기 등 작품에서 밝히지 못했던 모든 것을 밝힌다.

또 세계문학전집 100권, 한국문학전집 100권, 중단편소설집 100권, 시집 100권, 기타 역사사회학서적 100권을 읽지 않고는 소설을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통해 글에 대한 헌신없는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이렇듯 ‘황홀한 글감옥’에는 조정래 석좌교수의 글을 쓰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삶 또한 자세히 담겨있다.

그의 삶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세이는 그의 평소 신념(信念)을 곧고 일관되게 담았다. “소설은 인간사에 남겨지게 되는 중요한 기록(記錄) 중의 하나”라는 역사적 소명으로서의 글쓰기의 강조는 시사경령해지는 오늘날 소설에 새삼 소설의 본질(本質)을 일깨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고영섭 교수의 독서산책

언어의 연금술사, 미당을 기린다



미당 시전집 (전 3권)
지은이 서정주
펴낸곳 민음사
전 48,000원, 전 1,780쪽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이때가 되면 나는 시의 절창들이 그리워진다. 내 젊은 날 가장 절절하게 읊었던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의 『미당시전집』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싶다. 미당은 한국어의 연금술사이자 한국 현대시의 고전이다. 동시에 그는 자타가 공인(公認)하는 20세기 한국시의 태산(泰山)이다.

한국어는 세칭 ‘부족방언의 요술사’이자 ‘시인부락의 족장’인 미당의 손을 거쳐 비로소 찬란(燦爛)해졌다. 미당은 오랫동안 ‘시(언어)의 정부’로 인식(認識)되어 왔다. 현대 한국 시인들은 그 정부의 국민이 되어 시세계를 키워왔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는 항일(抗日)과 친일(親日)이 혼재한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정한 포퓰이 존재한다. 민주화시대에 미당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그는 한국시의 맹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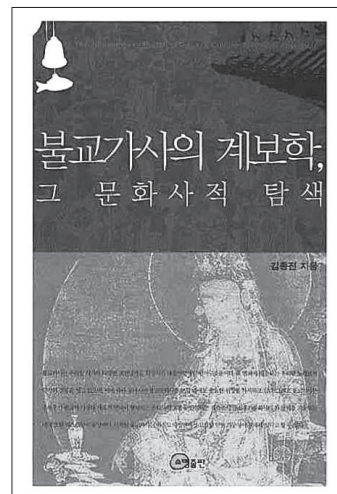
미당의 시집 15권을 집대성한 이 전집에는 ‘화사집’, ‘귀족도’, ‘서정주시선’, ‘신라초’, ‘동천’, ‘서정주문학전집’, ‘질마재 신화’, ‘떠돌이의 시’, ‘뿔으로 가는 달처럼’,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 ‘안 잊히는 노래’, ‘노래’, ‘말 할이 바람’, ‘산시’, ‘늙은 떠돌이의 시’ 등에 실린 851편의 시들이 담겨져 있다. 그는 이들 시집 속에도 술한 ‘명구’와 ‘명시’를 담았다. 미당의 시는 수많은 가곡들과 책제목으로도 환생했다. 그의 시는 ‘은유적 사교의 대담성’과 ‘언어의 황홀한 울동’에 기반(基盤)하여 장중한 호흡과 리듬, 파격적인 가락과 운율, 영매적인 직관과 통찰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개성들을 통해 그는 한국 현대시의 고전이 되었고 수많은 시인들을 절망케 했다.

미당의 명구는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다’(자화상), ‘한번 개선 소식 없든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부활),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운다’(귀족도),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푸르른 날), ‘잔치는 끝났드라’(행진곡),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같은 제목),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무등을 보며), ‘보라, 옥빛 꼭두선이’(학),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국화옆에서), ‘아 -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신록), ‘때 과부의 무리들’(풀리는 한강 가에서), ‘괜, 참, 타,’(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문 열여라 꽃아, 문 열여라 꽃아’(꽃밭의 독백) 등으로 꽃피었다. 그의 발화는 셀 수 없는 절창과 고전이 되었고, 또 다른 시인의 화법(話法)으로 복제되어 환생을 거듭했다.

시는 삶의 정수다. 시 속에는 산문(散文)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정신의 고갱이가 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의 힘이다. 직관에서 빚어진 시는 언어 너머 혹은 언어 이전의 세계를 통찰해 낸다. 언어와 언어 이전의 경계가 삶의 비의를 드러내는 시와 불교의 접점이다. 미당은 이름 그대로 60여 년 동안 ‘피 뱃새’와 ‘이슬방울’과 ‘귀기(鬼氣)어린 웃음’으로 시의 집을 지어왔으면서도 ‘아직 다 짓지 못했다’ 했다. 그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기 위해 ‘중앙일보’는 미당문학상(2001~)을 제정하여 가장 권위(權威)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다. 국화꽃이 향기를 더해가는 이 가을 학생들은 미당시를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현대시의 고전미를 배웠으면 한다.

〈불교학과 교수〉

불교가사의 작가 복원 ... 오류도 상당부분 보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지은이 김종진
펴낸곳 소명출판
19,000원 / 348쪽

불교가사의 계보학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 불교가사의 작가를 복원하고 전승의 양상을 살피며,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도출하면서 그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작가를 복원하고 작품 전승의 통시적 맥락과 그 의미를 그려보는 작업을 ‘계보학’이라 이름 붙인다.

한 편의 문학작품이 그 자체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역사·사상·종교 그리고 미술·건축 등 다양한 맥락에서 소통되며 형성하는 의미망에 대한 관심을 ‘문화사적 탐색’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학사 기술에서 보여준 오해와 오류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부는 17~18세기에 전승된 서유가, 태평곡(太平曲), 회심가(回心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17~18세기에 사상의 시대적 적응에 주목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들이 불교가사를 창작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제2부는 19세기의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수 이북의 공간성을 기반으로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며 불서를 판각한 남호영기(南湖永奇), 동화축전(東化竺典)과 영암취학(靈岩就學)을 발굴하여, 1850년대의 불서판각운동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이들 작가는 기존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조선 후기 불교실학이라 할 수 있는 판각 운동의 주체로서, 19세기의 불교문화사의 주축이 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19세기의 불교가사는 교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되 참선과 염불이 주제적으로는 독립적이면서도 작품의 내용에서는 함께 어우러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 불교문화사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19세기는 또한 민속화된 불교신앙이 흥성한 시기이고 여타의 예술방면에서도 흥성한 분위기 속에 각종 예술이 연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제3부 20세기 편에는 근대불교혁신운동의 매체로 불교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참선곡의 전통은 이 시대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검토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지장신앙의 백과사전
경전·문헌자료·불교미술을 집대성한
지장신앙의 백과사전
경전에 수록된 지장보살에서 구화산 김지장보살에 이르는 중국지장신앙 대장첩!
이 책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출판기금으로 출판된 『地藏信仰研究』를 완역한 것이다. 지장보살 관련 경·논·소 등 각종 문헌과 조각, 회화 그리고 그 영향관계에 있는 미술사 분야까지 집대성한 독보적인 지장보살연구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지장 I·II 전2권
장충 지음·김진주 옮김 | 4X6배판 변형
I권 경전과 문헌자료 연구 22,000원 | II권 조각과 회화 27,000원 | 세트 49,000원(하드케이스 포함)
구화산 김지장보살상
동국대학교출판부
전화 02·2260·3482~3 | 팩스 02·2268·7851
홈페이지 http://www.dgpress.co.kr
이메일 book@dongguk.edu



김갑수
교양교육원 교수

달하나 천강에

과학(科學)과 문화(文化)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은 접어두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과학을 탐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책은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번역판이건 원서건 관계없이 마치 영어를 배울 때 영어식 사고가 필요하듯이 과학에서 과학식 사고가 요구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양자문화(量子文化)라 하고 이와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의 문화를 연속문화(連續文化)라 하고 싶다.

먼저, 양자문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양자가설(量子假設)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 물리적으로 빛을 복사하거나 흡수하는 물체의 원자, 분자 따위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라는 명사를 빌려 불연속적이란 의미로 과학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양자문화 즉, 불연속문화는 동작 혹은 관념이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절(Kind) ≠ 좋아함(Like) ≠ 사랑함(Love)이 이처럼 분리되어 종속(從屬)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다. 단지 친절이면 그냥 친절이다. 그 이상도 또 그 이하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함도 그냥 좋아함이고 사랑함도 그냥 사랑함이다. 상대방을 소유함이 아니다. 따라서 동작 하나하나가 그 다음 목표를 위한 계산된 동작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도 구속(拘束)되어 있지 않은 자유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과학은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연속문화는 동작 혹은 관념(觀念)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즉 친절(Kind) = 좋아함(Like) = 사랑함(Love)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친절에는 계산이 깔려있고 목표가 있다. 그 다음 목표는 좋아함이고 또 그 다음 목표는 사랑함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유(所有)가 목표가 되어버린다. 연속문화는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빠른 사고방식을 향유하여 '빨리 빨리' 문화가 형성된다. 문제점은 바로 우리가 연속문화로 과학에 탐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학의 창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학은 과학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즉 양자역학과 같이 불연속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과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연속문화를 적용시키지 않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忍耐)하는 양자문화(불연속문화)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연속문화 속에서 양자문화(불연속문화)의 방식으로 생활하면 우리가 과학을 보다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민칼럼

김성하 연극영화 02졸
삼성 SDI 인사팀

취업(就業)을 앞둔 후배들에게

우선 대학생의 일반적인 경력경로는 두 가지이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에 더 매진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입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 우리 회사에도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동국대 학생들이 과연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역량(力量)이 뛰어난가 생각해 보았다.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기 힘들다.

오히려 과거 동국대보다 못하다는 대학들에게까지 역전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가령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TOEIC 점수만을 놓고 보아도 동국대 학생들이 타대학보다 우수하다 볼 수 없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을 지적(指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에 있어서 학점은 기본이고 자격증은 플러스알파라는 사실이다. 선발과정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벌, 자격증 등이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다른 대학보

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상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원이 아닌 기업입사를 택한 후배들이 전공과 관련된 최고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취업에서 학생들이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막상 입사를 해 보면 동국대학교 출신 동료나 선 후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정(認定)을 받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동국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준비에 임했다면 한다. 소위 말하는 스펙(학점, 어학, 자격증, 경력, 수상)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학시절을 얼마나 알차게,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보냈는가에 대한 척도(尺度)로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스펙은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실성, 노력, 끈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각

자가 노력할 점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편 정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드라마라고 해서 단순 리브스토리가 아닌, 자신을 한 단계 더 큰 사람으로 성장 시켰던 일화를 흥미롭고 극적으로 구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어느 스펙보다 강력한 여력이 될 것이다.

취업에 있어서 자신을 어렵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렵할 수 있는 글쓰기나 발표, 면접능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먼저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발표와 관련해서는 발표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에 관련해서는 면접스터디를 경험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순간의 이미지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많은 영향(影響)을 끼친다. 평소 밝게 웃고, 자신감있게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넘기 어렵다는 취업의 문턱을 오히려 손쉽게 넘을 수도 있다.



학생칼럼

박세희
신문방송학과 3학년

인류 문화의 십자로 터키에 서다

사·진·에·세·이



침묵, 고요 그러나 마음속은 '동대 합격'을 외친다.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역사학자 토인비는 터키의 이스탄불을 두고 인류의 옥외박물관이라고 했다. 수천 년간 동서 문화의 교차로(交叉路)가 되었던 터키의 인류문화학적 가치를 언급한 말이다.

실제로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차지로서 4개의 바다(에게 해, 지중해, 마르마라 해, 흑해)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징 덕분에 수천 년간 여러 민족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터키의 도시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터키제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리며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의 문화를 모두 간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역(主役)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터키를 탐방하고 터키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체험하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큰 배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8명의 한국 청

소년들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국가간 교류 사업을 통해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국가간 교류 사업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함양(涵養)을 위해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터키 과련단은 터키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스탄불을 비롯하여 수도 앙카라와 베이파자르, 네브셰히르, 콘야, 부르사 등 6개 도시의 문화유산을 탐방(探訪)하고 행정시설과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터키의 교육환경, 경제 활동과 산업 현황 등을 둘러보았다.

터키의 아시아와 유럽의 매력에 고루 갖춘 경관은 단연 신비롭고 이국적이었으며 현대적인 건물들과 산업들은 지난 역사를 발판으로 국제무대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터키인의 노력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일경 중에는 베이파자르 시청이

주관하는 1박2일간의 현지 흡스테이 프로그램과 한국 대표단의 소고춤 및 현대안무 공연 시간이 있어 터키의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기도 했다.

터키는 지난 문화와 역사 유산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이다. 그런 터키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같은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시간은 역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아야 할 한국 청소년 대표들에게 훌륭한 배움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疏通)하는 시간은, 앞으로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젊은이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기회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많은 동국인들에게 다양한 국제 교류에 적극적으로 도전(挑戰)할 것을 권하고 싶다.

문과대 Career upgardeII 취업특강

1. 사업 목적
최근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하여 취업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 목표
- 자기 주도적인 진로개발 능력강화
- 취업트렌드를 바탕으로한 취업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강화
- 기업의 경영원리와 조직-직무 이해, 비즈니스 마인드 고취

3. 사업 개요
- 대상 : 문과생, 취업에 관심있는 모든 학생, 회당 70명
- 일시 : 2009. 11. 4(수) 16시-
- 장소 : 다량관 세미나실
- 세부내용

일자	시간	특강명	내용	강사명
11.4(수)	16:00-17:20	취업경쟁률을 뚫어라! 2009년 취업트렌드	문과대생의 취업전략	안윤정 실장 김병숙 집플리센터
	17:30-19:20	2009 취업트렌드, CJ그룹 인재상 및 채용설명	기업원리, 조직-직무이해 비즈니스 마인드 고취	전상현 과장 CJ인재개발위원회

문과대학

2009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접수기간 2010.01.13(수) - 01.15(금)
수상작발표 2010.02.02(화)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공모부문 공연예술 : 희곡 / 뮤지컬 대본
영상시나리오 : TV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참가자격 재학생 / 수료생
2009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서울캠퍼스)학부 / 대학원 (석사)

접수처 영상미디어대학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혜화별관 1층)
Tel : 02-2260-3763

주최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협찬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dongguk UNIVERSITY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간 : 2009.11.02 ~ 27(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일시 : 월 - 금요일, 14:00-
3.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AV실)
4. 상영영화 : 인사동 스킨들 등 20편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런닝타임
가을출시 영화DVD	2	인사동 스킨들 / 박희곤	한국	109분
	3	김씨 표류기 / 이해준	한국	116분
	4	킹콩을 들다 / 박건용	한국	120분
	5	로니를 찾아서 / 심상국	한국	92분
	6	천사와 악마 / 론 하워드	미국	138분
	9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롤리니어	미국	96분
멀티미디어실 대어영화 베스트 5	10	미스 홍당무 / 이경미	한국	100분
	11	과속스캔들 / 강형철	한국	108분
	12	추격자 / 나훈진	한국	123분
	13	더 리드: 책 읽어주는 남자 / 스티븐 멀드리	미국	123분
	16	인생은 아름다워 / 로베르토 베니니	이태리	122분
사랑스런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17	투게더 / 켄 카이거	중국	117분
	18	홍차동 이발사 / 임찬상	한국	116분
	19	아버지가 있었다 / 오스 야스지로	일본	94분
	20	마이피터 / 황동혁	한국	107분
따뜻한 형제애, 형제간의 갈등과 사랑	23	가을의 전설 / 에드워드 즈윅	미국	130분
	24	레인맨 / 배리 레빈슨	미국	131분
	25	길버트 그레이프 / 라세 할스트롬	미국	118분
	26	우리형 / 안권태	한국	112분
	27	유레카 / 니시카와 미와	일본	119분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로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료수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



시론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판도라의 상자와 수능성적 공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금기'의 의미로 자주 쓰인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 상자를 열게 되면 상자에서 빠져나온 온갖 악(惡)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언젠가는 활짝 열리게 된다는 역설(逆說)적인 의미와, 상반(相反)되는 두 가지 상징, 즉 고통과 희망의 시작을 동시에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하다. 열게 되면 가혹한 고통은 있지만, 희망 또한 상자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 이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개됐다. 수능이 시행된 지 무려 15년 만에 그 결과가 공개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능성적 공개를 통해 지역별 성적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동안 짐작으로만 추정하던 고교 간 학력 격차도 확인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두 가지로, 수능성적 공개 방법의 적절성과 공개에 따른 효용성을 어떻게 담보(擔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의 부족성이다. 이번 공개와 같이 공개여부, 방법,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형태가 지속된다면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별·지역별 수능성적의 차이만 드러내는 자료로는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통한 과학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점 또한 있다. 이러한 공개방식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학교가 수능성적 및 학력이 높은 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써 확인시켜줄 뿐이다. 좀 더 충분한 분석(分析)과 대책 마련 이후에 공개했다더라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서열화, 고교등급제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상, 남은 과제는 수능성적의 결과가 아니라 성적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합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와 방법, 절차를 만들

어가고 공개된 자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強化)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논의(論議)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수능성적 분석을 통해 학력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게 급선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수능성적 결과에 대한 진단이 정확할수록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적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 이제는 차후 수능성적 공개의 방법과 한계를 교육전문가, 교원 및 학부모 대표,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에서 정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뒤처진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교육적 도움을 확대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이 실현(實現)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찾길 기대한다.

사설

현재의 이중적 결정, 우려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9일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 결과를 내었다. 현재는 야당이 제기한 대리투표, 표결방해에 대해서는 심의 표결권 등 권한이 침해(侵害)된 것을 인정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棄却)결정을 내린 것이다. 표결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미디어법 처리에 있어 절차상 위법(違法)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향후 국회에서 이러한 위법이 허용된다는 것인가, 안 된다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발생하는 대리투표, 날치기 법안 통과가 문제가 된다 한들 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도 "절차는 위법하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같은 얘기만 되풀이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만 증폭시키지 않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단호히 효력을 정지시켰어야 옳다. 법치주의란 바로 결과 못지 않게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는 이번에도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용으로써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가결선포 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는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使命)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의 결정이 끝남에 따라 양측 정부·여당이 의도한 미디어산업 재편 과정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날 언론보도의 불균형 문제다. 하나는 언론을 오로지 산업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불균형이고, 다음은 보수매체에 우호(友好)적인 언론 정책이 여론의 다양성 위축과 심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현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얼마전 끝난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자신들의 재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불법을 당연시 한다면 얼마 못 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번 결정과 정부 여당의 반응에 우려가 크다.



메아리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세상을 구하는 의사

▲세균이든 사회제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쪼먹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 몸으로 맞섰던 진정한 큰 의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 꿈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희망이라며 사람들의 꿈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의사가 있다. 바로 닥터 노먼 베슨. 그는 탁월한 흉부외과(胸部外科) 의사이자 의료운동가로서, 스페인에서의 반독재 투쟁, 중국 혁명과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의술을 펼쳤다. 그의 일대기는 지금도 많은 의료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젊은 산부인과(産婦人科) 의사 700여명은 11월 1일을 기해 '불법 낙태시술 전연 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지난 10월 28일, KBS 시사교발(時事告發) 프로그램 '주적 60분'이 심층 보도 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산부인과 60인이 분만감소 및 턱없이 낮은 분만수가(分娩酬價)때문에 불법 낙태시술(墮胎手術)로 인한 수입에 기대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이를 묵인하는 집무의 카르텔을 중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양심선언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이 불법낙태 및 저출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인 낙태시술을 했다는 것은 의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良心宣言)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에 대해서 대한산부인과사회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양심선언을 한 (가칭)대한산부인과 개원의사회에 대해 "대표성 없는 단체의 소수의 의견일 뿐이며 동료를 고발하는 극단적 행동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구태(舊態)만 보였다. 낙태시술이 불법이며,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정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작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을 '불법 낙태시술 중단'이 이제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대표성을 가진 대한

산부인과사회가 문제를 단순히 내부 갈등 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성행해 왔다.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의사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나마 낙태시술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고 이를 고지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肯定的)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습은 탈감지 않다. 닥터 노먼 베슨은 "진정한 의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되기 위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대(受胎)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대한산부인과사회는 이 선서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만평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공직적성시험 대비 계절학기 강좌개설 (장학선발)
문과대학 주관 공직(법학, 치의학)적성시험 대비 겨울계절학기 특별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설강좌(총 2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나. 논술/기초논리학영역: 김영식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대한교과서 논술팀 강사,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사, 논술지도사 책임위원 등)
다.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언어이해영역: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위원,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사,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접수위원, 논술지도사 책임위원 등)
2. 개설기간 : 2009.12.22(화) ~ 2010.01.15(금) / 겨울계절학기 기간
※겨울계절학기 자기개발강좌로 과목당 2학점씩 인정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수, 목, 마지막 주만 금요일 포함), 16일간
4. 수업시간 및 담당교수
구분 오전 오후
수업시간 10:30~12:30 13:00~15:00
해당강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DEV9005) 논증적 사고특강 (DEV9001)
담당교수 김영식교수 홍성훈 교수
5. 수 강 료 : 무료 (선발차 장학 처리)
6. 강 의 장 소 : 학생 후추후안내
7. 수강신청기간 : 2009. 11. 03 (수) ~ 2009. 11. 04 (목) / 유드림스 신청 / 계절학기과 동일
8. 기 타 사 항 : 강좌는 원리해설보다는 실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운영
※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 동국 글쓰기 공모전
□ 제 5 회 동국 우수보고서 공모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공모대상 : 2009년 1학기 / 2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시상부문 : 감상문 (독서 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 일반보고서 (그 외 일반)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 장려상 9명 각 100,000원
□ 제 4 회 독서와 글쓰기 공모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공모부문 : 자유부문 / 교양부문 / 글쓰기센터 추천 (부문별 도서 목록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응모형식 : 독서 감상문 (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300,000원 /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 장려상 5명 각 100,000원
※ 기타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주머니 파일)을 증정합니다.
▶ 응모기간 2009년 10월 1일 ~ 11월 20일
▶ 응모방법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결과발표 2009년 12월 초
▶ 문의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02)2260-3380
▶ 기타 제출된 원고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 전화 2260-3380 / 홈페이지 : http://writing.dongguk.edu
※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동국우수보고서 공모의 경우 강제명, 담당교수명도 기입)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취업글쓰기상담, 일반보고서상담, 보고서집중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 혹은 udrea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11/2) 갈비경단(2200)/돈가스(2500)/날치알볶음밥(2200)/참치전골(2500)
화(11/3) 두부구이(2000)/함박스테이크(2500)/낙지비빔밥(2200)/라면부대찌개(2500)
수(11/4) 미트볼조림(2000)/피자돈가스(3000)/치킨테리야기 볶음밥(2200)/김치찌개(2500)
목(11/5) 치킨샐러드(2200)/치즈돈가스(3000)/해물당면달걀(2200)/원장찌개(2500)
금(11/6) 간풍육(2200)/모듬가스(3000)/참치콘볶음밥(2000)/닭개장(2500)
상록원
월(11/2) 삼산적구이(2200)/치킨가스(2500)/제육비빔밥(2200)/김치치즈소박(2500)
화(11/3) 닭도리탕(2200)/치즈돈가스(3000)/산나물볶음밥(2200)/부대찌개(2500)
수(11/4) 돈육고추장볶음(2200)/상록원정식(3000)/닭갈비달걀(2200)/순두부찌개(2500)
목(11/5) 간풍육(2200)/돈가스(2500)/오므라이스(2200)/만두전골(2500)
금(11/6) 두부김치(2200)/수제돈가스(3000)/치킨골스스담밥(2200)/꽃게해물탕(3000)
아리수
월(11/2) 낙지돈육불고기덮밥(2200)/고추잡채덮밥(2200)
화(11/3) 닭갈비 비빔밥(2200)/제육비빔밥(2200)
수(11/4) 김치치즈덮밥(2200)/불고기덮밥(2200)
목(11/5) 산채비빔밥(2200)/치킨테리야기덮밥(2200)
금(11/6) 피자돈가스(3000)
혜화관
월(11/2) 돈삼겹두루치기(2200)/피자돈가스(3000)
화(11/3) 날치알새싹비빔밥(2200)/김치치즈소박(2500)
수(11/4) 제육비빔밥(2200)/부대찌개(2500)
목(11/5) 닭갈비김치덮밥(2200)/돈가스(2500)
금(11/6) 낙지콩나물비빔밥(2200)/쇠고기국밥(2200)

도심 속의 오아시스 아트 팩토리(Art Factory)

버려진 건물이 예술 공장으로... 이색적 분위기 돋보여



① 문래동 철제공장 셔터에 그려진 물고기 벽화 ② 열린 공방에서 한지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공예가 ③ 중앙시장 천장에 걸린 등(燈) 예술 작품 ④ 문래동 낡은 백반집 벽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화려한 벽화 사진 =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췌가루 날리는 공장 지대에 예술이 핀다? 오래된 지하상가 내 예술 흥과 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점포가 생겼다면? 대도시 서울 낡은 곳곳에서 부드러운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용도폐기된 공장, 상가 등의 유휴(遊休)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아트 팩토리'(창작 공간)가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수고 짓는 토목이 아닌 예술을 빌려 도심(都市)을 재생시키는 문화의 힘을 아트 팩토리를 통해 느껴보자.

문래동의 두 가지 얼굴

대한민국 철강재 판매 1위였던 곳이지만 재개발 압력으로 많은 상가들이 이전하고 도심 속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는 곳인 영등포구 문래동 소규모 철재(鐵材) 공장 단지. 매캐한 기름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쇳덩이를 자르고 다듬는 요란한 기계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오후 5시 30분, 퇴근하기 위해 서서히 셔터를 내리는 순간 예술작품들이 하나둘씩 창조된다. 이곳은 회화, 조각, 디자인 등 예술가 그룹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예술촌으로, 차갑고 삭막한 철제 상가에 벽화를 그려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문래 예술촌은 낡은 철제 상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지하실, 옥상 등이 예술가들의 창작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철제 공장단지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 부조화 속의 조화(調和). 문래 예술촌에서는 밤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ip! 매년 10월 경 '올레아트페스티벌'이 개최돼 문래동 철제 상가 지역 일대에 젊은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및 전시회 등이 이뤄진다. 낡은 상가 속 지하실, 옥상 그리고 길거리 등에서 선보이는 전시회 및 연극을 찾아 가는 건 어떨까. **가는 방법:**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 도보 5분

시장, 예술과 만나다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한 신당 지하상가는 한때 지역 중심상권(商圈)을 이뤘으나 지금은 99개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어있을 만큼 쇠퇴한 공간으로 전락(轉落)했다. 그러나 신당 지하상가의 빈 점포들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공예(工藝) 중심의 소형 스튜디오, 전시실, 공동 작업실 등 색다른 공간으로 변화했다.

아직까지 획집, 옷가게 등의 상점들과 공존하고 있는 '신당창작아카데미'는 섬유, 종이, 금속, 목공예, 관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 공간으로, 상가 곳곳을 디자인 작품으로 꾸며 지하상가 전체를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다. 중앙시장 천장에 전시된 예쁜 동물모양 등(燈)은 활기찬 시장의 기운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기둥, 출입구 등 공용공간이 벽화(壁畵), 디자인 오브제 등으로 꾸며져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창작의 공간답게 예술가들의 머리와 손에서 탄생한 가지 각색의 간판 모양도 주목할 만하다.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기발하고 아름다운 작품들도 직접 볼 수 있고, 시장 속 활력(活力)도 느낄 수 있는 신당 창작아카데미. 일석이조의 재미를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목하라.

Tip! 신당 창작아카데미 내 알록달록 예쁜 작품이 가득한 공방들은 유리 벽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이 실제 창작(創作)이 이뤄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들어가 예술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공예품 제작을 직접 배워볼 수 있다! **가는 방법:**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도보 2분

서울 속 예술공장은 많다!

한때 허물어질 날만 기다리던 옛 인쇄 공장(工場)이었지만 현재는 날마다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금천 예술 공장, 연극의 메카였던 드라마센터를 재탄생시킨 '남산예술센터', 동사무소를 흥대지역 문화 장구로 변모시킨 '서교예술실험센터' 등 폐기된 공간들이 예술의 힘을 통해 창작의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다. 아트 팩토리는 기존의 낡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유휴공간만의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창의(創意)와 열정이 담긴 오브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서울 도심 속 숨어있는 아트 팩토리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아트 팩토리는 우리 도시의 낡은 곳곳에서 부드러운 재개발을 선도하며 도심 속 새로운 문화 지도를 그리고 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하늘, 바람 그리고 음악이 함께 한 Fall in Love 콘서트

지난 28일 하늘마루에서 50여 쌍의 교내 커플 참여

남산타워 아래 서울의 야경이 다 보이는 건물의 옥상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음악(音樂)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지난 28일, 캠퍼스 연인(戀人) 초청 Fall in Love 콘서트가 서울의 야경이 한 눈에 보이는 만해관 하늘마루에서 열렸다.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가 연주되는 내내 캠퍼스 연인들은 준비된 담요를 함께 덮고 손을 꼭 잡으며 온기를 나눴다.

이날 가을 콘서트에는 커플들의 사연(事

緣)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교내 다양한 커플들의 이색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특히 콘서트 당일 1111일을 맞은 박정수·홍은주(인도철학4) 커플은 "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학기인데 좋은 추억(追憶)을 만든 것 같아 기쁘다"며 "평생 기억에 남을 기념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주를 이뤘다. 중앙동아리 현여울의 은은하고 감미로운 기타소리는 남산 아래 서울

의 야경과 어우러져 그윽한 맛이 한층 더 해졌다. 이어 연극학부 1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갈라쇼는 연극학부 특유의 끼와 열정이 돋보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대한도목회 합창단의 공연, 마술동아리 MASIC의 마술쇼, 외부밴드 엘의 초청 공연이 있었다.

매 봄·가을에 테마를 가지고 열릴 옥상 콘서트의 첫 스타트를 끊은 Fall in Love 콘서트.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교내에서도 가을 음악의 향연(饗宴)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지연 기자

lij88918@dongguk.edu



▲ 만해관 하늘마루에서 Fall in Love 콘서트 중 현여울의 클래식 기타 공연을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

북한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와 리즈메이칸대학교 코리안연구센터는 2009년 상호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국제협력시대에서의 동북아"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한·중·일 정상은 상호간 신뢰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펼쳐가기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어내면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와 리즈메이칸대학교 코리안연구센터는 그간의 한·중·일 대북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찾아보고, 이에 비추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있는 국제학술발표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동국대학교 동국관 M동 3층 첨단강의실

주제 : 신국제협력시대에서의 동북아

발표 : Nakato Sachio (立命館大) 김동한 (동국대) 김용현 (동국대)

Kaseda Yoshinori (北九州大) 顧金俊 (中國經濟日報) 이호남 (立命館大)

토론 : 윤 황 (선문대), Kaseda Yoshinori (北九州大) 이호남 (立命館大)

김용현 (동국대), Nakato Sachio (立命館大) 전미영 (동국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260-3508

북한학연구소

동남아시아의 근대와 불교

Modernity and Buddhism in the South East Asia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근대와 불교」를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원은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라는 총괄 주제로 중점연구 사업을 수행중이며 현재 2단계 주제인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이러한 아시아 근대 불교 연구의 일환으로 서양 계극주의의 침탈과 동남아시아 불교의 대응, 전통불교의 근대화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일정

주제 : 동남아시아의 근대와 불교

일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전 10:00 ~ 오후 5:00

장소 :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주관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주제 발표

제1주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구열강의 확장과 통치의 배경

/ Pham Quoc Su (베트남 Hanoi 사법대학)

제2주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진 서구 식민정책에 대한 불교의 대응 양상

/ Gamini Keerawella (스리랑카 Peradeniya 대학)

제3주제: 글로벌 시대의 태국 사회와 불교

/ Pichai Kankulsoontorn (태국 Chiang Mai Rajabhat 대학)

제4주제: 식민시기 미얀마 불교민족주의의 성격과 한계: 전통과 근대의 교차점에서

/ 장준영 (한국 외국어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